

아시아·아프리카 물 전문가들이 인천 송도에 모인 까닭은?

- 지스트 국제환경연구-CTCN 협력연락사무소 주관, 오늘부터 송도서 역량 강화 교육
- 수질 개선 등 국가별 물 문제 및 해법 공유..."과학기술로 물 문제 해결 기여"



▲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협력연락사무소가 주관, 지스트 국제환경연구소가 주최하는 '물분야 혁신기후적응 기술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최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아프리카 국가의 기후 기술협력 전문가들을 한국에 초청해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스트 국제환경연구소(IERI, 소장 김경웅)는 9월 26일(월)부터 29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태국·말레이시아·케냐 등 15개국* 18명의 물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15개국: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몰디브, 몽골, 네팔, 피지, 나미비아, 케냐, 잠비아, 탄자니아

이번 역량강화 프로그램에는 ▲물 공급 ▲수질 개선 ▲물 분야 기후 위기 대응 등 물 분야 전반을 기술·정책·재정 관점에서 다루기 위해 22명의 국내외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연사로 초청됐으며, 참가자들은 ▲자국의 물 분야 문제 발표 ▲강연 청취와 그룹 토론을 통한 해결 방안 논의 ▲잠재적인 협력 사업 논의 ▲기술 매칭 행사 참여 ▲정수 및 물 재이용 시설 현장 방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제환경연구소는 지난 7월 19일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협력연락사무소*가 주관하는 '물분야 혁신기후적응 기술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주최 기관으로 선정돼, 이번 해외 전문가 초청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CTCN 협력연락사무소와 공동 운영하게 됐다.

국제환경연구소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과 한화 약 1억 4천만 원의 운영협약을 맺었으며, 이번 행사는 CTCN 협력연락사무소가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유치로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기후기술협력 전담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limae Technology Center and Network, CTCN): 개발도상국의 수요에 기반한 에너지 효율과 저탄소 및 기후탄력적인 기후기술의 개발 및 이전 촉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3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국제기관. 지스트는 200번째 네트워크 회원 기관임

* CTCN 협력연락사무소(PALO, Partnerships and Liaison Office): 기후기술 연구개발·실증 협력 및 녹색기후기금(GCF)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목적으로 올해 7월 21일 인천 송도 G-tower 23층에 개소한 사무소. '21년 9월 27일 설립 협정이 체결되었고, '21년 10월 7일에 행정과 재정 약정이 체결되었으며,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총 125억원(매년 과기정통부가 20억원, 인천시가 5억원 지원)을 지원함



▲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협력연락사무소가 주관, 지스트 국제환경연구소가 주최하는 '물분야 혁신기후적응 기술 역량강화 프로그램'에서 지스트 국제환경연구소 김경웅 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경웅 소장은 "최근 국제환경연구소가 캄보디아 정부와 정수 장치를 활용한 CTCN 무상 기술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계기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다"며 "CTCN 협력연락사무소와 협력해 아시아·태평양과 아프리카 지역의 물 분야 문제 해결과 기후변화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스트 국제환경연구소는 유엔대학교 연구소 설립을 목적으로 지난 2001년에 설립된 이래 개발도상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연구개발 협력, 환경 전문가 양성 및 역량 강화에 크게 공헌하고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유엔개발계획(K-UNDP) 사업 등을 통해 물 분야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술메커니즘을 통해 국제기후기술 협력 및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